2004. 15. 2(월)
김은희연

선거가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체계정비부터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은 없어도 여학운동의 핵심일꾼인 은하언니, 부회장님, 나 이렇게 세명이 모이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없다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서 일꾼들을 만나고 조직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총여학생회에 처음 올라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다. 이 때쯤이면 이런 걸 해야 한다거나 하는 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거의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는 게으른 나의 습관으로 인해 옆에 동지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총여학생회장답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 부회장님은 집에 일이 있어서 학교를 안 나오는 일이 많아지고 은하언니는 내가 미워서 아무 일도 하기 싫다고 한다. 지금 총여학생회는 2%부족한 상황이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무언가 우리끼리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은 듯 하다. 서로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었던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 그리고 동지들의 고민을 들으려고 노력했던가 자문해 본다. 모두 반성이 된다. 부회장님과 은하언니는 회의 자리가 아니라도 평소에 많은 얘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늘 딱딱한 회의 자리에서만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다. 부회장님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듯 했는데 일주일정도 학교 안 나왔다느 것에 화가 나서 제대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표자의 품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과여부 관련해서 공대와 문과대를 만나기로 했다. 공대에는 회장님을 만났는데 정확한 과여부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다. 만난 다음 날이 공대운위라서 그 때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잊었다고 하셨다. 문과대는 만났는데 과여부 세워진 곳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왔다. 회장님들 만나면서 나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공대에는 과여부가 세워진 곳이 많은 데도 여회장님들 연락처라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제 공대회장님 만나고 회장님들한테 연락해서 상황 파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인선 관련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정희는 고민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많이 되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쉽지 않았지만 정희는 솔직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공부를 하게 두고 계속해서 만나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문과대 아이들에 관한 총화는 부회장님에게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한다.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빠르게 조직 복구에 힘을 씁시다. 더 이상 늦춰지면 19대 총여학생회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저부터 정신 차리고 학우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세명부터 일어납시다.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꾼들과 학우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자!!!

2004. 1. 24.

신김희정 부회장

지난 시기를 되돌아 본다. 무엇인가 많이 나에게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내가 소위말하는 이 운동이라는 관점속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선거이전으로 기억을 되돌려본다. 선본짱으로 결의하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서 부회장으로 바로 결의를 보아야 했다. 조직의 요구니 해야 할 시기이니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큰 결의를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가 높아지기도 전에 나는 나의 결심과결의를 단숨에 무너뜨릴 만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전에 있었던 결심들이나 결의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한 회의만 가중될 뿐이었다. 강의실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외롭고 지쳤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싶지도 않았다. 무작정 나혼자 고민하고 생각했던 기간이었다. 후배들의 눈물을 보고서도 회장님의 한숨이 묻어나는 모습에서도 나는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조차 싫었다.

이월을 받고나서 괜찮아 지겠지의 나의 고민은 멀리 떠나고 있었다. 학교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서 마음이 결코 편한 것은 아니었다. 작년 상희의 마음이 이랬을까? 아니 미경이 언니의 마음이 이랬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 보자고 몇 번이고 학교에 오지만 결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모두들 바쁘고 회의다 뭐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나를 억눌렀다. 아니야 내가 너무 과민한걸꺼야... 내가 계속자리를 비워서 그럴꺼야.. 라는 나 스스로를 타이르로 나 자신에게 화도 내어 보지만 그럴수록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더욱 힘이 들어진다.

내가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가졌을까? 아니라는 고민들이 먼저 든다. 나는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단순히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핵심?!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아는 척을 조금해서 그리고 학번이 그래서 있는 것일꺼야 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는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했다. 조금 지쳐서 그럴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조금함이 없어졌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는 생각도 없어졌다. 아니 옅어지고 있다.

얼마전 나에겐 고통스런 일주일이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냥 이모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빠가 빌려준돈 2억 가까이 되는 돈과 엄마가 아빠몰래 빌려준돈 몇 천만원이 문제였다. 이젠 받을 수도 없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앞으로 집이 많이 어려워 질것이라는 말이었다. 엎친데다 덮친다고 했던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작은집에 일이 생겼다. 작은 어머니가 사촌들을 시골집에 맡겨놓은채 돈벌겠다면서 나가셨다. 이문제로 온집안이 난리가 났다. 일단은 큰 고모네서 맡아서 있기로 했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속에서도 내가 서울에 가서 애들을 돌보느니 동생이 가느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집안의 일을 보면서 과거의 나였다면 나의 일이 아닌양 행동했을 것이다. 그럴 수가 없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아무것도 생각할수도 없었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시기였다. 아직까지 매끄럽게 일이 정리가 되진않았지만 내가 역시 되돌아와야 할 곳은 역시 학교였다.

언제부턴가 나는 사람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않고 있었다. 아니 멎번이고 하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하려고 다가가면 사람들은 저멀리 있었다. 아니 내가 멀리두고 봐왔을지도 모른다. 참 어렵다 이젠.. 내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들이 존재하고 누구나 다 있을법한 일인데... 다들 힘든일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 같다. 이젠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른다. 단지 아는 척 할 뿐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에 대한 질투가 많다. 그래선지 나를 빼고 하는 것 모두 싫어한다.(?) 그리고 이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무섭다, 다가가는 것 조차도 무섭고 싫다. 또한 아직도 내가 과연 그때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하는 것이 잘 모르겠다. 또한 나는 내가 관연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먼저 든다. 과거의 나였다면 먼저 저지르고 보는 나였을텐데... 또 생각이 나면 계속해야지...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일까? 하고싶은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젠 머리에 맴돌던 일부터 해 지워야지 겠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은하언이 회장님이 많이 도와줄것이란 생각이 든다.^^

은하의 총화서

1월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막살았다'. 하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지 못하였다. 하루에도 감정과 계획과 고민이 수시로 바뀌었다. 총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화를 냈다. 모두들 자기자리서 지키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답답해하며 여기저기서 화내고 신경질을 부렸다. 특히 대표자들에게 화가 많이 났다. '내가 대표자면 지금상황에 안절부절 하고 어떻게든 학교에 와서, 안오면 불안해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발을 동동구르고 그럴텐데 . . . 왜 작년이랑 달라진게 없나. .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있었다.

나는 남탓을 하였다.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 이라거나
'나는 그동안 무엇무엇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한 것이 별로 없으면서, 한두번 한 것으로 우려먹으려 한 것이 한게 아닌가 싶다.) 당신은 하였나요?' 라고 생각했다.
잘 생각해보면 그냥 흘려 생각해도 나의 부족으로 기인한 것이 크다 생각한다.
두 대표자를 대표자로 잘 세워내지 못하였다. 대표자를 높여 부르고 존칭을 쓰는 것이 대표자로 잘 세워내는 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나는 사실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역할과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고민이 되지 않으면 먼저 던져서 이끌어 내어야 했다. 조금 해보다가 안되면 그만두고 내가 지레 지쳐 그만두고 하였다.
내가 수배를 하면서 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많이 지쳤었다. 그래서 오히려 집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다. 내가 돈을 관리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오히려 챙기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또 답답해지고(사실 답답할 게 있을리 없는데). 중이 자기머리 못깎는다고 여러 필요한 것이나 그런 등등의 것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설에 내가 먼저 집에 인사 다녀오면 좋겠다고 얘기할때도 속상해 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바란 것이 많고, 솔선수범하지 않고 자꾸 비교(예를들면 동글선배집에 추석갈 때 얼마를 썼고 어떻게 했고. . .) 할려 하고, 알아주길 바란 것 같다. 어쩜 지금 쓰면서도 그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아직 난 밀었다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같은 수배자인 기창선배에게 나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수배를 개인문제로만 바라본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의지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왜 나는 주변에서 나에게 베푼 것은 잊고 받을려고만 했나 하는 반성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집에 신경쓰고 일부러 밥먹으러 가고 계속 이것저것 말해주고, 나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일부러 나땜에 학교에 나오기도 하고, 하루 계획까지 세우고 했는데 나의 속좁음으로 인해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글을 쓰다 보니 후련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못살았구나, 속 좁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허울이 나의 눈에 더 잘들어오고, 알아주길 바라고, 말로만 살려고 했었다.

또 기간 사람관계를 기계적으로 보려 하기도 하였다. 특히 하늘선배가 tk로 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 했었다. 사실 다른 일꾼들의 고민도 있었지만 선배인 내가 그런고민을 하면 더더욱 안되는 것이었는데. . .물론 체계상에서 오는 구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마저 그럴려고 했던게 아닌가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학습을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여학일꾼들의 학습마저 담보해내지 못하였다.
어떤날은 책만 읽다가, 어떤날은 책근처에 가지도 않고, 사색은커녕 잠만 잤다. 관점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게을렀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였다.
총여사업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혼자 해버린 것도 그렇고, 문제를 혼자 풀어가려고 했으며 고민도 함께 나눌려고 하지 않았다. 나의 고민을, 힘든 것들도 함께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혼자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곤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 자신과의 약속도 깨고, 친구와의 약속도 소홀히 하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나의 약속들은 헌신짝처럼 내버려졌다. 공부를 하겠단 약속도, 오늘 무슨일을 하겠단 약속도 모든걸 져버렸다.

게으르고 생활도 엉망이고 모든 활동을 하지 않았다.
매일 방안에서 뒹굴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싫었지만 스스로 추스르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청소도 안하고 정리도 안하고 많은 날을 건물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방안에서 누워서 보내는 날이 많았다.

동지들의 관심과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뿌리치고 오히려 상처를 줬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말을 꺼내려는 사람에게 무심하게 할말있음 하라는 식으로 말을 못하게 못박기도 하였다. 혹은 그사람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나에게 말할 자격 없는 사람은 하지말라'는 식으로 비꼬았다. 정말 나쁜 모습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
<u>조직이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u>
우리는 우리의 결정사항을 너무나 우습게 안다. 우리가 하자고 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2주일 전에 하기로 하였던 것을 아직도 못하고 매 회의때마다 다시 결정하고. . .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회의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 .결국 우리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한 것이 아닌가? 방향을 잡아내고 집행사항을 내어오는 것이 무척이나 무엇보다 중요하나 매일 말로만 그치고, 시간이 가도 매일 그 자리라면 우리조직은 발전은 없다.
또한 개인간의 약속이나, 스스로에 대한 계획 내지 약속도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
우리가 지키자.

함께하는 사람과 조직에 정말이지 솔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가?
거짓총화를 하거나 두루뭉실 넘어가거나 칭찬받지 못할 일, 혹은 잘 못한 사실을 일부러 총화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다.
총화하지 않은 자신 스스로의 잘못이 있다. 이것은 비겁한 짓이다. 조직에 총화를 하지 않는 것은 조직에 나를 맡기지 않고 따로 노는 개인주의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이 부족하고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부터 솔직사지 못한 점이 많다.
어디서 이런 모습이 기인하는 것일까? 공명심에서 오는 것일까? 믿지 못하고 함께 하지 않 개인적인 모습에서 온다. 물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 .

이제부턴 정말 말뿐이 아니라 나부터 솔선부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겠다.
사실 그동안 나의 과오중에 큰 것중에 하나는 바로 분공받은, 하기로 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중계획서 내어오자고 하였는데 늦게 내어오고, 과여부 관련해서 단대파악을 하기로 하였는데도 게을리하였다. 유일하게 회장님만 직접 만났는데 그때에도 나는 침대에 누워서 회장니, 부회장님이 사람을 게을리 만난다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
내가 내어온 계획인데도 하루에 학우한명 꾸준히 만나기로 해놓구선 이틀하고 남 탓하다 그만두고. . .사실 나의 게으름때문인데. . . 내가 안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 했어야 했다. 중간멈춤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 . 난 작심이일이었다.
사범대는 모든 과가 여자/남자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만 그렇다는데 새터로 바빠 회장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사실 연락을 한번밖에 하지 못했다.) 자원대는 회장님, 부회장님 두분다 알고계시다 시피 그러하나.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총화들은 것이 어느것도 없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지영, 은영, 해진에 다 놀러오면 얘기 하려 했는데 아직 안와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
사실 연락을 자주 하지도 못하였다.
지영이는 학원을 다닌다. 어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새 까먹었다. 시내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
은영이는 과 Fact(학회-답사관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교에 가끔 나오고 있다 .
해진이는 과외날짜가 바뀌었는데 화토였던 것 같다. 확실지 않다.
호순이는 내가 폰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연락처를 잃어벼렸는데 큰일이다.
사실 설에도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

→ 실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는 think.